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권 10편 섭리를 바르게 적용하기

제1권 제17장 1-14절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기독교강요』 상, 255-275쪽)

?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계획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억울한 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이 믿음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나요?

흐름 한눈에

칼빈은 앞 편(1.16)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섭리 교리를 세웠다. 이 편에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다룬다. 먼저 섭리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은 경외해야 하고, 드러난 말씀은 부지런히 따라야 한다(1-2절). 다음으로 섭리를 잘못 쓰는 두 방식을 반박한다. 하나는 “어차피 정해졌으니 조심할 필요 없다”는 숙명론이고, 다른 하나는 “악행도 하나님 뜻이니 범인은 죄가 없다”는 핑계다(3-5절). 이어서 섭리를 바르게 묵상할 때 맺히는 열매를 길게 풀어 놓는다. 잘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인내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다(6-11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성경 구절이 섭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명한다(12-14절).

절별 정리

1. 세상의 소란 뒤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 (재료에 절 제목과 앞부분 누락)

재료는 이 절 중간부터 시작한다. 남아 있는 부분에서 칼빈은 폭풍 비유를 든다.

바깥의 혼란이 묵상하면 각각의 고통에 각각 모든 것이 돌아갈 것임은 각각의

판단력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공의와 지혜로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스려 바른 목적으로 이끄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고 들며 그분의 감추어진 계획을 캐내려 하고, 모르는 일까지 함부로 판단한다. 칼빈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사람끼리는 경솔해 보이지 않으려고 판단을 잘 미루면서, 아무리 높여도 부족한 하나님의 판단에는 쉽게 욕을 한다는 것이다.

1.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고요해진다
2.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신다
3. 하나님의 숨은 판단을 함부로 재판하지 말 것
4. 사람에겐 조심하면서 하나님께는 경솔한 모순

(이 절의 남은 부분에는 인용 구절 없음)

2.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

칼빈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섭리를 바르게 헤아리고 거기서 유익을 얻는다고 말한다. 반대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율법에 드러난 뜻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주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으로 다스려진다”고 가르치면 그것을 사람이 지어낸 말로 몰아붙인다. 칼빈은 성경으로 답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을 깊은 바다에 비유한다. 모세는 율법은 가까이 있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그와 별도로 깊은 바다 같은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말이 된다. 말씀으로 계시된 신비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길과 등불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법은 감추어져 있어 경외할 대상이다. 신명기 29:29가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도 인용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질서를 다 알지 못하니 율법을 따라 선한 뜻으로 행하면 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변하지 않는 법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다. 칼빈의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의의 유일한 기준이다. 다만 그것은 궤변가들이 말하는 '정의와 동떨어진 절대 의지'가 아니다. 우리가 이유를 다 몰라도 그 뜻에서는 옳은

2. 드러난 뜻(말씀)은 부지런히 배워 행한다
3. 감추어진 뜻(우주 통치)은 경외하며 우러른다
4. 하나님의 뜻은 의의 유일한 기준이다
5. 정의와 분리된 '절대 의지'는 아니다

시편 36:6

하나님의 판단은 깊은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신명기 30:11-14

율법은 가까이 있다 → 그와 다른 감추어진 뜻이 있음을 암시

¹¹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¹²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¹³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¹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1:33-34

하나님의 판단과 길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³³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³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 40:13-14

(참조)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¹³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¹⁴ 그가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으나

이사야 11:2

'총명의 영'이 계시된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욥기 20:3

(참조) 깨닫게 하는 영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시편 119:105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4

(참조) 생명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12

(참조) 생명의 빛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명기 29:29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욥기 26:14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행사의 일부, 속삭임일 뿐이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기 28:21

자연의 비밀스러운 지혜는 모든 생물에게 숨겨졌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욥기 28:28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3.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

섭리 앞에서 삼가는 사람은 지난 불행을 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 자기 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않는다. 칼빈은 고전 문학에서 세 가지 예를 든다.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아가멤논은 “내 탓이 아니라 제우스와 운명 탓”이라고 말한다. 플라투스 희극 『바키스 자매』의 한 청년은 “운명대로 끌려갈 뿐”이라며 절벽에서 몸을 던지겠다고 한다. 같은 작가의 『황금 단지』에 나오는 리코니데스는 “신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 잘못을 덮는다. 경건한 사람은 이와 달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배워 그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간다. 그러나 '속된 사람들'은 섭리를 엉뚱하게 쓴다. 죽을 때가 정해졌다면 조심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한 길을 피하고,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고, 나쁜 음식을 삼가고, 무너질 듯한 집을 피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노력이 모두 헛되든지, 아니면 삶과 죽음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기도도 쓸데없거나 잘못이라고 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거부한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섭리 탓으로 돌리고, 정작 그 일을 피하려고 사람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갈 때도

간음한 자를 “하나님 계획의 실행자”라 부른다. 병든 부모를 방치한 아들도 “정해진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모든 범죄를 덕으로 둔갑시킨다.

1. 운명 탓·신 탓은 이교도의 변명 방식이다
2. 경건한 사람은 말씀에서 할 일을 찾는다
3. 숙명론: “정해졌으니 조심도 기도도 소용없다”
4. 핑계: “범인도 하나님 뜻을 이뤘을 뿐”
5. 결과적으로 범죄를 덕으로 바꿔 버린다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고전 문학 예시만 사용)

4.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무

먼저 미래 문제에 답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계획을 쉽게 조화시킨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그 뜻에 따르는 일이다. 이유는 이렇다. 우리 생명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돌볼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다. 생명을 지킬 수단과 도움도 주셨고,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과 대비책도 주셨다.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고, 주신 도움을 쓰고, 경고받은 위험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치료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반대자들은 “운명적인 위험이 아니면 해가 없고, 운명적인 위험이면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칼빈은 이렇게 되묻는다. 하나님이 그 위험이 운명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대비책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으로 조심하라고 명하신다. 반대로 게으르게 무시하면 스스로 재난을 부른다. 조심하는 태도와 무모한 태도가 모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이 미래를 감추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 대비하고, 위험을 이기거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수단을 계속 쓰게 하시려는 것이다. 섭리는 '맨몸'으로 오지 않고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온다.

2. 생명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생명을 돌볼 책임도 맡기셨다
3. 수단·경계·치료책을 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4. 하나님은 미래를 감추셔서 대비하게 하신다
5. 섭리는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온다

잠언 16:9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간다는 핵심 근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별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5.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악한 행동

이번에는 지난 일 문제다. 반대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모든 일이 섭리로 일어난다면, 도둑은 하나님이 가난으로 벌하려던 사람을 털었을 뿐이고 살인자는 하나님이 거두려던 생명을 거두었을 뿐인데 왜 처벌받는가?" 칼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자기 악한 욕망에 끌려 행동한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명령을 거스르는 일은 순종이 아니라 죄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반문에 칼빈은 그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자기 정욕에 휩싸여 일부러 하나님을 거스른다. 다만 무한히 지혜로운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써서도 선을 이루신다. 칼빈은 악인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래도 그들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불의에 가담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뒤에 숨을 수도 없다.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지 못한다. 칼빈은 태양과 시체 비유를 든다. 햇빛

1. 악인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섬겼다
2. 하나님의 뜻은 말씀(명령)으로 배운다
3.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도 선을 이루신다
4. 도구로 쓰였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5. 햇빛과 시체 악취 비유: 죄책은 악인에게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태양·시체 비유로 논증)

—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적인 묵상, 6-11

6. 섭리를 묵상하면 얻는 유익

칼빈은 이런 비방이 섭리를 경건하게 묵상하면 쉽게 물리쳐진다고 말한다. 그 묵상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첫째 원인으로 본다. 동시에 부차적 원인들도 제자리에서 주의 깊게 살핀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자신을 지키시므로, 결국 자신에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의 계획과 뜻, 수고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하시는 쪽으로 기울이기도 하시고 억누르기도 하신다. 칼빈은 하나님이 신자를 특별히 돌보신다는 약속들을 길게 나열하고, 성경 역사의 주된 목적도 이 돌보심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반대 입장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만 인정하고 개별 피조물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은 부인한다. 칼빈은 앞에서 이미 이를 반박했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돌보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뜻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며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특히 드러내신다.

1. 하나님을 첫째 원인으로 보고 부차적 원인도 살핀다

4. 일반 섭리만 인정하는 견해를 반박한다

5. 참새와 머리카락: 개인을 향한 돌보심

시편 55:22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불드신다는 약속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7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염려를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91:1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스가랴 2:8

신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창세기 15:1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레미야 1:18

하나님이 종을 낫 성벽처럼 세우신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예레미야 15:20

위와 같은 약속의 반복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9:25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사야 49:15

어머니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91:12

돌에 발이 걸리지 않게 하실 만큼 세밀한 보호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10:29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뜻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30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 개인적 돌보심

너희에게는 만기된 권자가 계시니 만물 위에 권하신다

마태복음 10:31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7. 일이 잘 풀릴 때의 섭리

신자는 이런 약속과 실례로 힘을 얻는다. 모든 사람은 기꺼이 순종하든지, 아니면 악의가 억눌려 해를 끼치지 못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원수의 악을 꺾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때로는 원수의 분별력을 빼앗으신다. 아합 때에는 거짓 영을 보내 선지자들 입을 거짓으로 채우셨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에 홀려 나라를 잃게 하셨다. 때로는 원수에게 분별을 주어 겁을 먹고 계획을 포기하게 하신다. 때로는 날뛰게 두셨다가 결정적 순간에 꺾으신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깨뜨리셨다. 마귀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옴에게 손댈 수 없었다. 이 지식에서 세 가지가 따라온다. 잘될 때의 감사, 어려울 때의 인내, 미래 염려로부터의 해방이다. 일이 잘 풀리면 신자는 그것이 사람을 통해 왔든 사물을 통해 왔든 모두 하나님 덕분으로 돌린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풍성한 수확을 볼 때도 하늘과 땅과 곡식이 서로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한다.

1. 모든 사람은 순종하든 억눌리든 하나님 아래 있다
2. 원수의 판단을 흐리시거나, 겁주시거나, 꺾으신다
3. 마귀도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4. 열매: 감사, 인내, 염려로부터의 해방
5. 사람·사물을 통한 도움도 하나님 덕분이다

출애굽기 3:21

원수 이집트 앞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심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열왕기상 22:22

아합을 속이는 거짓 영 — 원수의 판단을 흐리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열왕기상 12:10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름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열왕기상 12:15

그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사무엘하 17:7

아히도벨의 모략이 반박됨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사무엘하 17:14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기로 정하심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호세아 2:21-22

하늘·땅·곡식의 '응답' — 풍요도 하나님의 복

²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²²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8. 일이 꼬일 때의 섭리

어려움이 닥치면 신자는 곧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고, 거기서 인내와 평안을 얻는다. 칼빈은 세 인물을 예로 든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만 곱씹었다면 형제의 정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다. 욥은 약탈자 갈대아 사람들의 잔인함만 생각했다면 곧장 복수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찬송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았을 때 시므이만 보았다면 부하들을 시켜 보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없었을 것을 알았기에 부하들을 말렸다. 칼빈은 분노와 조급함을 고치는 데 이보다 나은 약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에게 부당하게 상처받을 때 그들의 악함만 곱씹으면 고통은 커지고 복수심만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올라가 모든 일이 그분의 공의로운 경륜 안에서 허락되었음을 믿으라고 한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로 한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마귀와 악인을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친히 심판관으로 앉아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신다는 것이 가장 유익한 교훈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끼지 않은 재난도 우연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율법은 형통은 복이고 환난은 징계라고 가르친다. 모든 일을 우연으로 돌리는 둔함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지도, 징계에 회개하지도 못한다.

1. 가해자만 보면 고통과 복수심이 커진다

4. 하나님은 심판관으로 앉아 인내를 시험하신다

5. 재난을 우연으로 돌리면 감사도 회개도 없다

창세기 45:5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며 위로함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7-8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심

⁷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⁸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20

사람은 악을 꾀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욥기 1:21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여호와 — 고난 중의 찬송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무엘하 16:11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편 39:9

주께서 하신 일이므로 잠잠함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에베소서 6:12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1

진짜 원수는 마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신명기 28:2 이하

순종에 따르는 복 — 형통은 하나님의 복

²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

신명기 28:15 이하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 환난도 하나님 손 아래

¹⁵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

레위기 26:23-24

23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예레미야애가 3:38

화와 복이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모스 3:6

재앙도 여호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사야 45:7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뎌야 마땅하다.”

9. 부차적 원인도 무시하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유로 사람과 수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을 도운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섬기는 일꾼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빚졌다고 느껴 기회가 닿는 대로 보답한다.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동시에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손해가 생기면 그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났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자기에게 돌린다. 칼빈은 예를 든다. 환자를 맡은 사람이 부주의해서 환자가 죽었다면, 그 환자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더라도 자기

일에서는 부차적 원인을 특히 신경 쓴다. 사람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기를 꺼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도구로 기꺼이 쓴다. 결과를 모르니 최선이라고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되,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맡긴다. 눈에 보이는 후원이 있다고 거기에 기대어 안심하지 않고, 없다고 떨지도 않는다. 요압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자기 임무를 부지런히 감당한 것이 그 본보기다. 이 지식은 교만과 지나친 자신감을 없애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위험 앞에서 담대하게 만든다.

1.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감사하고 보답한다
2. 내 실수는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내 책임으로 진다
3. 범죄를 섭리로 감싸지 않는다
4. 도움·조언·수단을 기꺼이 쓰되 거기 기대지 않는다
5. 요압: 결과는 맡기고 할 일은 부지런히

사무엘하 10:12

요압이 담대히 싸우며 결과는 여호와께 맡김 — 수단과 의탁의 조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0. 섭리를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

칼빈은 섭리를 모르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생생하게 묘사한다. 우리 몸은 수천 가지 질병을 담은 그릇이고, 추위도 더위도 위험하다. 배를 타면 죽음과 한 걸음 거리이고, 말에서 떨어지면 목숨이 위태롭다. 거리를 걸으면 지붕 기와 수만큼 위험이 있다. 손에 든 무기, 맹수, 담장 두른 정원에 숨은 뱀, 화재, 우박·서리·가뭄과 기근, 독과 매복과 강도와 폭력까지 있다. 사람은 목에 칼이 드리운 채 반쯤 살아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숨 쉬게 된다. “그런 일은 드물고, 모두에게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칼빈은 그 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남들이 겪는 일을 보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히 덧붙인다. 여기서는 사람이 운명의 지배 아래 있다고 가정할 때 겪을 비참함을 묘사했을 뿐이다.

1. 몸·자연·사람 — 사방이 위험이다
2. 운명에 맡겨진 인생은 목에 칼이 드리운 삶
3. “드물다”는 반론: 남의 일이 곧 내게 경고가 된다
4. 이 묘사는 '운명이 지배한다면'이라는 가정이다
5. 하나님이 사람을 운명에 맡기셨다는 말은 신성모독

(이 절에는 인용 구절 없음)

—

11.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

섭리의 빛이 비치면 경건한 사람은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 모든 염려에서 풀려난다. 운명이라는 생각은 끔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는 담대히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가 모든 일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뜻과 지혜로 다스리시니, 그분의 결정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도 불도 칼도 그를 해칠 수 없다. 천사들의 보살핌도 받는다. 시편이 이 확신을 여러 번 노래한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사슬에 매여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붙잡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정하시고, 동시에 그 분량과 한계도 정하신다. 바울은 한 곳에서는 사탄이 여행을 막았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고 한다. 사탄의 방해만 말했다면 사탄에게 지나친 권세를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허락에 맡김으로써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윗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다. 칼빈은 다윗이 '때'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쓴 점에 주목한다. 삶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그 모든 변화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위협하는 연합군을 연기 나는 부지깥이 그루터기라 불렀고, 에스겔은 강대국 이집트 왕 바로를 갈고리에 꿰인 악어에 비유했다. 결론은 섭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참이고,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2. 마귀는 사슬에 매여 하나님 뜻을 섬긴다
3. 하나님은 악의 방향과 한계를 모두 정하신다
4. “내 앞날(복수)이 주의 손에” — 모든 변화를 주관
5.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시편 91:3-6

올무·전염병·밤의 공포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³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⁵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⁶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6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56:4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27:1

여호와가 빛과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3

군대가 둘러싸도 마음이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3:4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71:14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18

사탄이 바울의 여행을 막았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고린도전서 16:7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 — 사탄 위에 하나님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시편 31:15

내 앞날(복수)이 주의 손에 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사야 7:4

위험하는 왕들은 여기 나는 그루터기일 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에스겔 29:3-4

강대한 바로도 갈고리에 꿰인 악어처럼 끌려간다

³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⁴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요, 또한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섭리를 아는 데 있다”

반론들에 대한 답변, 12-14

12.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칼빈은 신자를 가르치고 위로하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헛된 호기심은 아무리 설명해도 채워지지 않으며, 채워 주려 해서도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해명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구절들이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백성이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겠다고 하셨다. 둘째는 선포하신 일을 거두신 사례들이다. 니느웨에 40일 뒤 멸망을 선포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자 거두셨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리셨다가 눈물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늘려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정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실에 따라 해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 결정하신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먼저 원칙을 세운다.

결정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령은 사울을 두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같은 장에 나란히 놓였으니 둘을 비교하면 겉보기 모순이 풀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발람조차 자기 뜻과 달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했다.

1. 호기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2. 반론 근거: 후회 구절, 선포를 거두신 사례
3. 반대 주장: 하나님은 그때그때 새로 정하신다
4. 진짜 후회는 무지·무능·경솔을 뜻하게 된다
5. 같은 장에 “후회 안 하신다”가 함께 나온다

창세기 6:6

(반론 근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무엘상 15:11

(반론 근거)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레미야 18:8

(반론 근거) 백성이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심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요나 3:4

(반론 근거) 40일 뒤 니느웨 멸망 선포

요나 3:10

(반론 근거) 회개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 38:1

(반론 근거) 히스기야에게 죽음 선포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38:5

(반론 근거)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심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년을 더하고

열왕기하 20:1

(반론 근거) 같은 사건의 병행 기록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20:5

(반론 근거) 같은 사건의 병행 기록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사무엘상 15:29

같은 장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선언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민수기 23:19

원수 발람조차 하나님의 불변을 증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3. "후회"는 우리 눈높이에 맞춘 표현

그렇다면 “후회”는 무슨 뜻인가? 칼빈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다른 모든 표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라고 한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닿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분인데도 죄인에게 화내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께 사람 같은 감정 기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사람의 경험에서 빌린 말로 그린 것이다. “후회”도 행동의 변화 이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사람은 자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행동을 바꾸고, 그 고침은 후회에서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말을 쓸 때는 단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번복되지 않는다. 사람 눈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 미리 보시고 정하신 것을 한결같이 이루어 가신다.

1.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 자신을 표현하신다

3. 하나님께 '후회'는 다루시는 방식의 변화일 뿐

4.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번복되지 않는다

(이 절에는 새로 인용한 구절 없음 — 12절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원리)

14. 헛갈리는 구절들 풀기: 숨은 조건

니느웨와 히스기야의 경우도 하나님의 작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멸망과 죽음을 선포한 것은 맞지만, 결과를 보면 거기에 말하지 않은 조건이 들어 있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묻는다. 그냥 멸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요나와 이사야를 보내 미리 알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셨다. 그러니 40일 뒤 멸망한다는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장수의 소망을 끊으신 것도 그가 더 오래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위협으로 사람을 깨워 회개하게 하시고 마땅한 심판을 피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 위협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조건이 담긴 경고였다. 아비멜렉의 경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님은 먼저 “네가 죽을 것” 이라고만 말씀하셨다가, 아비멜렉이 해명하자 “여인을 돌려보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고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첫 선언은 마음에 충격을 주고, 둘째 선언은 뜻을 밝히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포를 거두셨다고 해서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다. 살리려는 사람에게 형벌을 경고해 회개시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방식이다. 차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조건을 말로 다 밝히지 않으셨다는 것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것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

1. 멸망 선포 안에 '말하지 않은 조건'이 있었다
2. 미리 알리신 목적은 회개시켜 살리는 것
3. 아비멜렉: 첫 경고 뒤에 조건을 밝히심
4. 경고하고 살리시는 것 자체가 작정의 실현이다
5.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아무도 못 돌이킨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 38:5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 조건부 경고의 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년을 더하고

창세기 20:3

아비멜렉에게 내린 첫 경고 (조건이 숨어 있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7

둘째 말씀에서 조건이 드러남 (재료의 '20:1'은 OCR 오류로 보임)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사야 14:27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누구도 폐할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오해와 반론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모든 일을 목적에 맞게 다스리시는 일.

작정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 정하신 계획.

경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운영 방식.

첫째 원인 / 부차적 원인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첫째 원인)이고, 사람의 선택·약·날씨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중간 수단이 부차적 원인이다.

감추어진 뜻 / 드러난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 운영 계획(감추어진 뜻)과, 말씀으로 알려 주신 우리가 행할 뜻(드러난 뜻).

운명(포르투나)

눈먼 우연이 인생을 휘두른다는 이교적 생각. 칼빈은 섭리와 정반대로 본다.

숙명론

“어차피 정해졌으니 노력은 소용없다”는 태도. 칼빈은 이것을 섭리의 오용으로 본다.

맞추어 말씀하심(적응)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과 경험을 빌려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식. '후회', '진노' 같은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언의 조건

경고 안에 말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담겨 있는 조건. “회개하지 않으면”이 그 예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과 삶의 태도.

✓ 이 편의 결론

- 섭리 앞에서 감추어진 뜻은 경외하고, 드러난 말씀은 부지런히 따른다.
- 섭리는 게으름이나 범죄의 핑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 일하시고, 악인의 죄책은 악인에게 있다.
- 섭리를 묵상하면 잘될 때 감사, 힘들 때 인내, 미래에 대한 자유가 생긴다.
- 섭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참이고,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 눈높이에 맞춘 표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